

50~60대 기혼 남녀의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 탐색

The Prospects of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50s and 60s
about their Future Coresident Family Members, Caregivers, and Residence

진미정(Meejung Chin)¹, 성미애(Miai Sung)^{2*}, 변주수(Joosoo Byun)³

¹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³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how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prospected their family life in terms of their future coresident family members, caregivers, and residence, and what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se prospects. The prospects reflected their realistic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preference based on their current life situations. Data were drawn from a survey of 800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50s and 60s in Seoul and Gyunggi-do. Following previous research, we examined how resources (age, sex, health status, spouse's health status, number of children, current living arrangement, and household income), subjective perception on their responsibility for their parents and children, and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with their children were associated with the prosp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s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prospect which is with whom they would live, who would care for them, and where they would live in different ways. The resources were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 prospect on coresident family members and residence. The perceptions on responsi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 prospect on caregivers. The relational satisfaction was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 prospect on coresident members. These results undersco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aregiving and family life would change in 10-20 years. Family policymakers need to take these changes into consideration as they deal with issues of family policy.

▲주제어(Key Words) : 50대, 60대 기혼 남녀(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50s and 60s), 동거 가족(coresident family members), 돌봄자(caregiver), 거주지(residence),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prospect on the aged family life)

• 이 연구는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Miai Sung,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aehak-ro 86, Jongno-gu, Seoul 110-791, Korea, Tel:+82-2-3668-4648, E-mail: eliza_s@knou.ac.kr

I. 문제제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노년 인구의 등장과 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2030년경에는 최빈 사망연령이 90세가 넘는 100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인구와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면에서 다르고, 그들이 영위할 가족생활도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도시화의 결과 베이비부머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져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달리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보다는 자녀와는 독자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며,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삶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Chung, 2012). 따라서 이들이 가족이나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관 및 노년기에 대한 전망은 이전 세대와는 상이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0세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사회제도, 규범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100세 사회는 뉴 노멀(New Normal)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Cho et al., 2012; Lee, 2011). 뉴 노멀이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하며, 비정상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Chosun Weeklybiz, 2010.3). 즉 100세 사회는 가족 구조와 기능 등 가족체계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자체를 새로운 표준으로 보고 이에 맞추어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우리 사회에 대한 전망, 특히 100세 사회 전망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한다. 대표적인 연구는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 변화를 살펴본 연구(Kang et al., 2006),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연구(Lee, 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 가족정책 전망을 살펴본 연구(Chang et al. 2011),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을 살펴본 연구(Chung, 201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제도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서 존재하게 되고, 가사산업이 확장되면서 탈가족화가 이루어지며, 정보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가족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일터가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혼율, 남녀평등, 이주 노동자 수, 청년 실업, 자원의 고갈, 신기술 개발, 우주 개발 등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거시적 전망은 사회가 어떤 방향을 발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정책영역을 발굴하거나 미래지향적 정책을 설계하는 토대가 된다(Chang et al., 2012). 그런데 거시적 전망은 실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 생활을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개인들의 전망과 관련되는지도 보여주지 못한다. 개인이 가지는 미래생활에 대한 전망은 거시적 전망이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자원에 따라 전망의 구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시적 전망에 따르면 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Chung et al., 2012),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 혹은 배우자하고만 살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는 연구는 사회적 전망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일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어떤 집단에서 혹은 어떤 이유로 거시적 전망에서 벗어나는 개인적 전망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의 전망은 거시적 차원의 전망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된다.

현재 50대, 60대는 향후 도래할 100세 사회의 새로운 노년층을 구성할 사람들이다. 50대, 60대는 인간발달 상 중년기로, 인생의 정점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자아개념을 확립하며, 노년기 삶을 예측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Lee & Sung, 2012). 특히 지금의 50, 60대에 있는 중년의 경우 성인기까지도 본인들이 100세의 삶을 살 것이라는 전망이나 계획 없이 100세 사회에 접어든 첫 번째 세대로서, 다른 어떤 세대보다 노년기 삶에 대한 준비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들이 예측하는 미래 노년기 가족생활에 대한 전망은 새로운 노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와 서비스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토대하되 전망의 초점을 미시적, 개인적 수준으로 낮추어 50대, 60대가 전망하는 미래 노년기의 가족생활의 전망을 살펴보고,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로 범위를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주제로 한정된 이유는, 현재 한국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인 고령화, 저출산화는 실제 가족규모의 축소화, 가족관계의 장기화 현상을 이끌면서 궁극적으로 가족 내 돌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Kwak et al., 2012), 가족 내 돌봄 문제는 구체적으로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100세 사회에서

변화된 노인 돌봄 규범이나 실재를 그대로 체감하게 될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이들이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특히 누구와 함께 살고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돌봄과 생활은 노인의 자원, 가치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진다(Chung, 2012; Kim, 2005; Seok, 2009). 즉 노년기 생활은 기본적으로 삶의 토대를 이루는 자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1순위는 건강관련 문제, 2순위는 경제적인 문제, 3순위는 사회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Seok et al., 2011). 통념적으로 노인의 4고로 알려진 질병, 빈곤, 고독, 무위 역시 노인의 자원, 가치관, 가족관계와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 하에서 노부모는 자녀, 특히 장남이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이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 의식이 강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부모의 노년기 준비 및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 Byun, 2013). 노년기 고독의 주된 원인 역시 가족관계 내 갈등이다(Kim & Yoo, 2009; Yoon & Yoo,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동거 가족과 돌봄, 그리고 거주지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자원, 가치관,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 전망의 시간적 조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0년과 20년 후의 전망을 각각 질문하였다. 10년 후와 20년 후는 연구대상들에게 노년기 초기와 노년기 중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각각 단기와 중기적 전망을 의미한다. 각각의 전망은 개인 및 가족상황의 변화에 따라 10년이나 20년 후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 자원(연령, 성, 건강상태, 배우자 건강상태, 미혼자녀 수, 기혼자녀 수, 현재 가족구조, 가구소득), 가치관(부모부양, 자녀부양), 가족관계(부부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요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50, 60대 기혼 남녀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20년 후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50, 60대 기혼 남녀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20년 후 동거 가족과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50, 60대 기혼 남녀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20년 후 돌봄자와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50, 60대 기혼 남녀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20년 후 거주지와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노년기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0세 사회를 뉴 노멀로 인식하고서 노년기 삶을 재설계해야 하는 실천 현장에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100세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및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에 따라 정책안을 마련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노년기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에 대한 전망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 양상은 노인들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상태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가족환경·경제·사회 등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Yoo, 1996). 전통적으로 심신능력이 쇠퇴하는 노부모의 부양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가족과의 동거여부나 양상은 노인들의 생활과 복지 및 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Han & Yoon, 2001; Won, 1995).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노인 독거와 노인부부 등의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동거율이 1994년 54.7%에서 2011년 27.3%으로 급감한 반면, 노인독거율은 1994년 13.6%에서 2011년 19.6%로 증가하였고, 노인부부율은 1994년 26.8%에서 2011년 48.5%로 증가하였다(Chung et al., 2012; Lee et al., 1994).

노인들의 희망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17.9%에 불과하며, 자신과 자녀의 경제적, 건강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동거를 기대하는 비율이 15.1%,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67.0%로 나타나 세대 간 동거 경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동거하는 경우에도 노인 돌봄 차원의 동거보다는 자녀세대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노인에게서 단독가구를 형성하려는 지향성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나 동거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노인 돌봄제공자에 대한 의식 변화와 연결된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기대는 1994년 28.6%에서 2011년 14.2%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들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4년 48.8%에서 2011년 55.0%으로,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4년 22.4%에서 2011년 30.6%로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1994; Chung et al., 2011). 또한 노인의 가족유형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Kim and Lee(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유형(노인독거가족, 노인부부가족, 자녀동거가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이 돌봄서비스(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재택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또한 노후의 신체적 수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을 선택한 비율은 32.7%인데 비해 요양시설은 36.1%, 요양병원은 21.1%, 재가서비스는 10.0%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 중에서도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기 보다는 개인이나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부양책임에 대한 Kim(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가용한 자원(교육수준, 소득, 유배우자 등)이 많을수록 가족보다는 개인 혹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한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개인적 자원의 효과는 2004년 자료에서 더 작아져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점점 더 완화되고 노인 돌봄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기대가 자기 돌봄이나 부부 돌봄으로 수렴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간이므로 노인에게 있어 거주지가 갖는 의미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다(Min & Han, 2007). 노년기가 되면 자녀의 출가나 독립에 의해 동거하는 가족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생활 환경이나 거주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양로시설인 유당마을이 문을 열면서 노인의 삶에 맞춤형으로 건설된 실버타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거주지로 요양시설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노년기 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학 분야에서 미래 노인주거 개발 방안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Oh and Lee(1993)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주거 소유 욕구나 공간 크기에 대한 규범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자녀와의 거주거리에 차이가 있어, 건강할 때는 자녀가 같은 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노인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같은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단독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 거주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노년기 주거유형 선택을 예측한 Choi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자금 준비금액이 4억 미만이며,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51.9%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을 살펴본 연구(Chung, 2012)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은 자연환경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연결해서 농어촌에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의 거주지 선택이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노년기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관련 변수

노인 부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양의식과 부양부담(책임) 등의 내용으로 분석되어져 왔다(Choi, 1998; Kim & Seo, 1998; Kim et al., 2000; Kim C., 2005; Kim H., 2007; Lee, 2009; Lim, 1988; Park, 2002; Seok et al., 2007; Song, 2004). 특히 부양부담에 대한 내용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동거와 수발,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고 있으며,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용한 자원, 가치관, 그리고 가족관계를 언급하였다.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감을 조사한 연구(Cho, 2004)에 의하면, 본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부양기대감(부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심감)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긍정적 정체성이 부양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Seok(2009)의 연구에서는 고령세대일수록 노후 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는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자원(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 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여기는 반면, 경제적 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 부양관을 가진 중년층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현재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전통적 부양관이 낮은 중년층은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 가치관이 노년기 가족동거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부모부양 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배우자 부양에 대한 Han and Lee(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호혜적인 동기로 배우자를 돌보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 노인은 의무감으로 혹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돌본다고 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느끼는 부담에서도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꼽았으며(Chung, 2012), 부부간에 노후생활(생활비, 건강유지방법이나 여가활동 등)에 대해 의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 부부간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12). 한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모의 경우 자녀의 결혼을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기혼자녀의 경우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기에 때문에 미혼자녀 수와 기혼자녀 수는 향후 노년기 삶의 전망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0대, 60대가 생각하는 자원에 연령, 성별, 건강상태, 배우자 건강상태, 미혼자녀 수, 기혼자녀 수, 현재 가족구조,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가치관에는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가족관계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노년기의 동거가족, 돌봄자, 거주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므로, 각 영역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수집 절차¹⁾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 60대 기혼 남녀이다. 먼저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2012년 7월 5일~10일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2012년 7월 23일~8월 17일까지 기혼 남녀 각 400명씩 8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800명 중 서울 거주 응답자는 60%, 경기도 거주 응답자는 40%이며, 서울은 4개 지역(북동, 북서, 남동, 남서)으로, 경기도는 5개 지역(북부, 서남부, 남부, 서부, 동부)으로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내용은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과 관계, 현재 세대관계 및 돌봄, 가족가치관, 거주지 및 지역사회 참여, 정신건강 및 만족도, 10년 후 및 20년 후 전망 등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응답자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10년/20년 후 각각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향후 본인/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봄이 필요하면 누가 돌봐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10년/20년 후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다.

2. 측정 도구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 미혼자녀 수, 기혼자녀 수, 가구소득, 부모부양가치관, 자녀부양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이다. 성별의 경우 더미변수(여성=1)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건강하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8단계(100만원 미만=1, 700만원 이상=8)로 측정하였다. 가치관 관련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부양가치관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두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자녀부양가치관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의 세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0점(부정적)에서 10점(긍정적)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종속변수 중 10년/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기혼 아들, 기혼 딸, 며느리, 사위, 미혼 딸, 미혼 아들, 친손자녀, 외손자녀, 친인척, 기타 지인’ 중 중복해서 선택하게 하였고, 이 중에서 ‘혼자’를 선택한 집단과 ‘배우자’만 선택한 집단, 그리고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기혼자녀와 함께’를 선택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인/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 누가 돌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배우자(본인), 장남/큰며느리, 여건이 되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여건이 되는 자녀, 전문 돌보미, 요양병원 등 전문기관,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를 크게 ‘배우자(본인)’, ‘자녀’, ‘전문기관 이용’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10년/20년 후 어디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금 사는 동네, 자녀가 사는 동네,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 형제자매들이 사는 동네, 요양병원, 실버타운, 시골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를 크게 ‘지금 사는 동네’, ‘가족(또는 친척)이 사는 동네’, ‘요양병원 및 실버타운’, ‘시골이

1) 이 연구는 2012년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것임.

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기법

통계 분석으로는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향후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에 제시한 <Table 1>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50%로 같고, 거주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60%였다,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50%로 동일하였다.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68%이었으며, 가구소득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	%	Mean	S. D.	Min	Max
Sex	Male	400	50.0				
	Female	400	50.0				
Area	Seoul	480	60.0				
	Gyung-gi do	320	40.0				
Age	in 50s	402	50.3				
	in 60s	398	49.8				
Employment	Employed	544	68.0				
	Unemployed	256	32.0				
Monthly Income	under 100 Million Won	37	4.6				
	100-199 Million Won	70	8.8				
	200-299 Million Won	120	15.0				
	300-399 Million Won	135	16.9				
	400-499 Million Won	138	17.3				
	500-599 Million Won	138	17.3				
	600-699 Million Won	77	9.6				
	700 Million Won +	85	10.6				
Current Living Arrangement	Couple	245	30.6				
	Couple + unmarried children	527	65.9				
	Couple + married children	18	2.3				
	Other	10	1.2				
Number of Children	Unmarried children	800		1.24	0.92	0	5
	Married children	800		0.84	1.07	0	5
Number of Household Members		800		3.19	1.02	1	8
Duration of Residence (year)		797		18.24	12.38	1	69
Health status	Respondent	800		3.71	0.73	1	5
	Spouse	800		2.25	0.70	1	5
Value	Responsibility for parents	800		3.19	0.83	1	5
	Responsibility for adult child	800		3.39	0.62	1	5
Satisfaction	Marital relations	800		6.73	1.67	0	10
	Parent-child relations	800		7.12	1.32	0	10

분포는 300만원 미만인 28.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34.1%, 500만원 이상이 37.5%였다. 가족구조는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는 30.6%,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65.9%,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3%였다. 자녀 수는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미혼자녀는 평균 1.24명, 기혼자녀는 평균 0.84명이었다. 가구원 수는 평균 3.19명이었으며,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18.24년이었다. 건강상태는 본인과 배우자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는데, 본인은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M=3.71$, $SD=.73$)한 반면, 배우자는 보통 이하의 건강 수준을 보인다고 인식($M=2.25$, $SD=.70$)하고 있었다. 가치관은 부모부양가치관과 자녀부양가치관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는데, 모두 보통 이상의 부양의식을 보이고 있었다(부모부양가치관: $M=3.19$, $SD=.83$, 자녀부양가치관: $M=3.39$, $SD=.62$). 만족도는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는데 두 관계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부부관계만족도: $M=6.73$, $SD=1.67$, 자녀관계만족도: $M=7.12$, $SD=1.32$).

2. 향후 동거 가족, 돌봄자, 주거에 대한 전망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앞으로 1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배우자(83.00%)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자녀(10.69%), 혼자(5.79%), 노부모 또는 친인척(0.6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배우자(75.72%)라고 하였지만, 혼자(17.61%)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고, 자녀(4.5%)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다.

향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누가 돌봐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 경우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 장남이나 아들, 여건이 되는 자녀 등 자녀에게 기대한다고 한 경우는 11.2%였다.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돌봐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이 20.9%,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한 비율은 2.45%였다.

흥미롭게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돌보겠다고 한 비율이, 나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Table 2. Expected Coresident Family Members, Care-giver, and Residential Area in 10 Years and 20 Years

Variable	10 years later	20 years later	Respondent	Spouse
Coresident family members	None	46 (6.15)	116(14.76)	
	Spouse	664(88.77)	627(79.77)	
	Married children	38(5.08)	43(5.47)	
	Total	748(100.0)	786(100.0)	
Caregiver	Respondent			593(76.61)
	Spouse			-
	Children			19(2.45)
	Non-family Services			162(20.94)
Total			784(100.0)	774(100.0)
Residence	Current neighborhood	631(79.77)	416(2.26)	
	Nearby family	46(5.82)	77(9.67)	
	Nursing home	-	57(7.16)	
	Rural area	114(14.41)	246(30.91)	
	Total	791(100.0)	796(100.0)	

Note: Those who answered living in nursing home in 10 years were deleted due to the scarcity.

2) 결혼한 딸·아들, 며느리, 사위, 미혼 딸·아들, 친손자녀 포함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가 돌볼 것이라는 전망이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거주 전망에 대해서는 10년 후에도 현재 사는 지역에 살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79.77%로 가장 높았고, 농촌이나 고향으로 간다는 비율이 14.4%, 자녀가 있는 동네로 간다는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20년 후 거주 전망은 현재 사는 곳이 52.26%, 농촌이나 고향이 30.9%, 자녀가 있는 동네 9.67%, 요양병원이나 전문시설이라고 한 비율이 7.16%로 나타났다. 10년 후의 주거지에 비해, 20년 후 주거지에 대한 전망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농촌, 자녀 근처,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3. 10년/20년 후 동거가족 전망과 관련된 요인

앞으로 10년/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전망하는 응답 유형을 크게 혼자, 배우자, 기혼자녀로 구분

하여, 각각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앞으로 10년 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간에는 성별과 부부관계만족도 외에는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가 없었다. 즉 현재 여성보다는 남성이($b=.69, p <.05$),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b=-.31, p <.001$) 10년 후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더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29, p <.01$) 배우자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성별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미혼자녀 수, 기혼자녀 수, 현재 가족구조(부부+미혼자녀, 부부+기혼자녀), 부모부양가치관, 자녀부양가치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0년 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상하는 응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b=.12, p <.001$), 남성보다는 여성이($b=1.36, p <.001$), 본인의 건강상태가 낮을수록($b=-.30$,

Table 3. Multinomial Logit Results of Coresident Family Members in 10 Years and 20 Years

Variable	10 years later				20 years later			
	Alone		with married children		Alone		with married children	
	b	(s.e.)	b	(s.e.)	b	(s.e.)	b	(s.e.)
Age	.07	(.04)	-.03	(.04)	.12	(.03)***	.03	(.04)
Female	.69	(.35)*	.05	(.35)	1.36	(.25)***	.42	(.34)
Health status	.08	(.22)	.26	(.29)	-.30	(.15)*	.41	(.31)
Health of spouse	.26	(.21)	.05	(.30)	.34	(.15)*	-.08	(.33)
# of unmarried children	-.43	(.37)	-.12	(.34)	-.00	(.23)	-.02	(.31)
# of married children	-.32	(.25)	.36	(.29)	-.27	(.18)	.20	(.31)
couple + unmarried kid	-.16	(.57)	-.17	(.62)	-.36	(.39)	-.36	(.58)
couple + married kid	.46	(1.13)	1.24	(.72)	-.44	(.84)	.14	(.94)
Monthly income	-.16	(.11)	.29	(.11)**	-.05	(.07)	.46	(.11)***
Responsibility for parents	-.19	(.22)	.01	(.24)	-.20	(.15)	-.08	(.23)
Responsibility for child	.04	(.29)	.54	(.33)	.41	(.21)*	.59	(.33)
Marital satisfaction	-.31	(.10)***	.07	(.14)	-.30	(.07)***	.01	(.14)
Parent-child satisfaction	-.10	(.13)	.06	(.16)	.04	(.10)	.24	(.16)
Constant	-3.40	(2.91)	-7.00	(3.30)*	-7.97	(2.08)***	-11.85	(3.39)***
-2LogL	566.385				815.549			
LR chi2 (26)	74.8396***				161.6639***			
N	748				786			

Note: The reference group is those who answered living with a spouse.

* $p < .05$, ** $p < .01$, *** $p < .001$

$p < .05$), 배우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b=.34, p < .05$), 자녀 부양가치관이 높을수록($b=.41, p < .05$), 부부관계만족도의 점수가 낮을수록($b=-.30, p < .001$),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보다 혼자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46, p < .001$) 기혼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에 비해 높았다.

4. 향후 본인 및 배우자 돌봄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

향후 본인 및 배우자 돌봄과 관련하여 응답 유형을 크게 배우자, 자녀, 전문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해보았다. <Table 4>에 제시되어 있듯이,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b=.41, p < .05$), 자녀부양가치관 점수가 낮을수록($b=-.63, p < .01$)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더 높

았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b=.86, p < .001$), 부모부양가치관 점수가 낮을수록($b=-.34, p < .01$)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한 사람들에 비해 전문 요양사나 전문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연령,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미혼자녀 수, 현재 가족구조, 가구소득, 부부관계, 자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와 다소 다른 요인들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보다는 남성이($b=-1.11, p < .05$), 현재 부부와 미혼자녀가 살고 있는 가족유형이($b=2.39, p < .05$) 본인이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에 비해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더 높았고, 또한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b=.32, p < .05$)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b=-.43, p < .01$),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모부양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b=-.30, p < .05$) 본인이 돌볼 것이라고

Table 4. Multinomial Logit Results of Caregiver when a Respondent or Spouse Needs Care

Variable	When a respondent needs care				When a spouse needs care			
	children		professional service		children		professional service	
	b	(s.e.)	b	(s.e.)	b	(s.e.)	b	(s.e.)
Age	.03	(.03)	-.02	(.02)	.06	(.06)	-.00	(.02)
Female	.48	(.25)	.86	(.18)***	-1.11	(.56)*	-.15	(.19)
Health status	.18	(.18)	-.01	(.13)	-.25	(.36)	-.43	(.13)**
Health of spouse	-.05	(.19)	.16	(.14)	-.13	(.39)	-.07	(.14)
# of unmarried children	.26	(.24)	-.21	(.17)	.28	(.43)	-.02	(.18)
# of married children	.41	(.18)*	-.08	(.15)	.41	(.42)	.32	(.15)*
couple + unmarried kid	-.13	(.42)	-.21	(.29)	2.39	(1.07)*	.06	(.32)
couple + married kid	.28	(.75)	.10	(.59)	-10.34	(558.1)	-.52	(.64)
Monthly income	.01	(.08)	.01	(.05)	-.18	(.15)	.08	(.06)
Responsibility for parents	.33	(.18)	-.34	(.12)**	-.07	(.34)	-.30	(.12)*
Responsibility for child	-.63	(.23)**	.12	(.16)	.14	(.46)	.01	(.16)
Marital satisfaction	-.17	(.09)	-.10	(.07)	-.05	(.18)	-.02	(.07)
Parent-child satisfaction	-.14	(.11)	-.11	(.08)	-.08	(.21)	-.07	(.08)
Constant	-1.80	(2.25)	2.05	(1.59)	-6.25	(4.46)	1.59	(1.69)
-2LogL	1332.133				916.435			
LR chi2(26)	97.4568***				47.0874***			
N	784				774			

Note: The reference groups are those who answered spouse as a caregiver for the respondent and those who answered the respondent him/herself as a caregiver for the spouse.

* $p < .05$, ** $p < .01$, *** $p < .001$

전망하는 확률이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에 비해 더 높았다.

5. 10/20년 후 거주지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

앞으로 10년/20년 후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인지 예상하는 응답 유형을 크게 지금 사는 동네, 가족이 사는 동네, 요양병원 및 실버타운, 시골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하였다. 단 10년 후 주거지역 전망에서 요양병원 및 실버타운을 선택한 비율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10년 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b=1.13, p < .01$),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b=-.54, p < .01$),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b=-.09, p < .001$) 가족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

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b=.37, p < .05$),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b=-.03, p < .001$),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 점수가 낮을수록($b=-.52, p < .001$) 시골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지금 사는 동네에서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보다 높았다.

20년 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b=.90, p < .01$), 미혼자녀 수가 적을수록($b=-.89, p < .01$), 부부와 미혼자녀만 거주하는 유형이($b=1.57, p < .01$), 현재 사는 곳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b=-.10, p < .001$) 가족이 사는 동네에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b=.11, p < .01$), 미혼자녀 수가 적을수록($b=-.81, p < .05$), 가구소득이 많을수록($b=.37, p < .001$) 지금 사는 동네 보다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13, p < .05$),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b=-.02, p < .01$) 지금 사는 동네에서 살 확률보다 시골이나

Table 5. Multinomial Logit Results of Residential area in 10 Years and 20 Years

Variable	10 years later				20 years later					
	nearby family		rural		nearby family		nursing home		rural	
	b	(s.e.)	b	(s.e.)	b	(s.e.)	b	(s.e.)	b	(s.e.)
Age	-.03	(.04)	-.02	(.03)	-.03	(.03)	.11	(.04)**	-.03	(.02)
Female	1.13	(.38)**	-.40	(.22)	.90	(.29)**	.32	(.30)	-.09	(.17)
Health status	-.54	(.23)**	-.14	(.16)	-.16	(.21)	-.39	(.22)	.01	(.13)
Health of spouse	-.17	(.26)	.08	(.17)	-.19	(.23)	.15	(.22)	.00	(.14)
# of unmarried children	-.01	(.32)	.35	(.20)	-.89	(.29)**	-.81	(.33)*	-.28	(.16)
# of married children	.13	(.27)	.37	(.18)*	-.17	(.24)	-.23	(.24)	.10	(.15)
couple + unmarried kid	.47	(.59)	-.31	(.36)	1.57	(.52)**	.56	(.55)	.56	(.29)
couple + married kid	1.24	(.94)	.06	(.71)	.67	(.90)	-1.38	(1.13)	-.42	(.63)
Monthly income	-.20	(.11)	.08	(.07)	-.16	(.09)	.37	(.09)***	.13	(.05)*
Residence (year)	-.09	(.02)***	-.03	(.01)***	-.10	(.02)***	-.01	(.01)	-.02	(.01)**
Responsibility for parents	-.00	(.23)	-.52	(.14)***	.20	(.19)	-.39	(.20)	-.23	(.12)*
Responsibility for child	-.21	(.29)	.05	(.19)	-.23	(.24)	.52	(.28)	-.15	(.16)
Marital satisfaction	-.08	(.11)	.01	(.08)	.04	(.10)	-.17	(.11)	-.04	(.06)
Parent-child satisfaction	.03	(.14)	.06	(.09)	-.11	(.12)	.05	(.13)	-.02	(.07)
Constant	3.40	(3.01)	.43	(1.98)	4.75	(2.53)*	-8.34	(2.90)***	2.81	(1.57)
-2LogL	889.289				1611.455					
LR chi2	DF(28), 91.0544***				DF(42), 160.4576***					
N	788				793					

Note: The reference group is those who would live in current neighborhood.

* $p < .05$, ** $p < .01$, *** $p < .001$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50, 60대 기혼 남녀가 100세 사회의 본인 노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의 노년기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본인과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질문은 응답자의 선호보다는 현실적 전망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며, 응답자들의 응답에는 누구와 살고 싶은지의 선호보다는 현실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내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사회적 추세와 개인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노후의 동거가족에 대한 개인적 전망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계적·규범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개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자원, 가치관, 관계)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50~60대들도 자녀세대와 같이 살지 않는 노후생활을 규범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자녀세대의 노인 부양과 수발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현재 중년들은 앞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의 돌봄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나 미래 전망에 대한 개인적 수용 또는 전망이 반드시 동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를 더 빨리 내면화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인구집단 간에 나타날 지체현상이나 갈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규범에 대한 상이한 기대로 인해 차이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향후 10년, 20년의 삶을 전망할 수 있는 50대와 60대 기혼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적 전망의 준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인 10년 후와 더 먼 미래인 20년 후라는 시점에 대해 두 번 질문하였고, 동거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돌봄,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그리고 향후 전망의 내용과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 후 동거가족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는 배우자와 동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10년 후 배우자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단둘이 살기보다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20년 후 동거가족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10년 후 전망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동거할 것이라고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배우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부양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단둘이 살기보다는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은 100세 사회에는 노년기 부부가족이나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시적 전망(Chung, 2012; Han,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고 전망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노년기 동거가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둘째, 향후 본인 및 배우자 돌봄과 관련한 전망을 살펴보면, 과반수는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돌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배우자 다음으로는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부양가치관을 지지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부양가치관이 낮을수록 배우자보다 전문요양사가 자신을 돌보거나 전문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와 다소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 부부와 미혼자녀가 살고 있는 가족유형에서 본인이 배우자를 돌볼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비해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모부양가치관이 강한 경우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본인이 배우자를 돌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의 일차적인 주체가 배우자가 될 것이며, 전문 서비스의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시적 전망(Chung, 2012; Han,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책임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전망이 달라진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가 노후에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실제 이러한 전망이 충족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부모-자녀 간의 기대가 불일치할 경우 가족관계상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0년 후 살고 있을 거주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지금 사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기혼자녀 수가 많을수록,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는 경우 지금 사는 동네보다 시골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0년 후에도 과반수는 지금 사는 동네에 산다고 전망하지만, 시골 및 고향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한 경우도 10년 후 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자녀 수가 적을수록, 부부와 미혼자녀만 거주하는 유형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이 사는 동네에 살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녀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지금 사는 동네보다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살 것이라고 전망하는 편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지금 사는 동네보다 시골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논의해 보면, 현재 50~60대가 노년층이 될 때 부부가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서로 돌봄 확률이 가장 높으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들(Chung, 2012; Hong & Gwak, 2012; Sung & Byun, 2013)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응답자 자신은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향후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전문서비스의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배우자에 대한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 부부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 즉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으면서도 스스로는 배우자의 의무감이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본다면 적어도 지금 50-60대는 부부관계에 만족하는지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가치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는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며,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 내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Jung, 1995). 따라서

향후 삶을 전망할 때 유용한 변수가 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부양가치관이나 부모부양가치관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지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에 의한 돌봄에 대한 기대가 낮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보다 다양한 삶의 대안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가족 중심으로 노년기의 삶을 재설계하는 것을 전망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삶의 양식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부양이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적 변화나 추세를 반영한 전망을 하기 보다는 자녀로부터의 돌봄을 전망하는데, 이러한 전망이 자녀세대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자녀세대와 갈등을 갖게 되거나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Chung et al., 2012)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는 19.6%, 부부만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48.5%,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7.3%, 기타가 4.6%이다³⁾.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50~60대가 70~80대가 될 때까지 부부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자녀와 사는 비율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새로운 노년층으로서 자기 돌봄과 배우자 돌봄을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 사는 거주지에서의 연속적인 생활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년기의 수발 서비스가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정으로 파견되는 가사서비스, 외출동행 서비스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저소득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와 별도로 일반적인 노인 대상으로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일정한 비용은 자부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60대들은 부부관계 중심의 노년기를 전망하면서도, 그에 맞는 관계적 자원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만족도는 동거가족에 대한 전망과 관련이 있었다.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의 경우 향후 배우자와 함께 살기 보다는 혼자 살 것으로 전망하는 확률이 높았다. 노년기의 독거는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이 된다.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부교육

3) 이 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이므로 요양병원 등 노인전문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종합진단 척도에는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횟수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노후준비지표로 포함되어있다(<http://csa.nps.or.kr/self/decrepitude.do>). 국민연금공단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노후준비 교육으로 부부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는 중년들이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분담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서 노인들의 자기 돌봄을 지원하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50-60대들은 20년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여 가능한 한 오래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노인주거정책이 필요하다(You & Hong, 2005).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친화적 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환경이 노인들에게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추진하듯 노인친화적 지역사회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지역사회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가족정책에서는 노년기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노인 문제를 가족 문제로 다루지 않아왔다. 그러나 100세 사회의 노년기, 특히 노년기 초기와 중기의 가족은 요양과 신체적 수발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노년층이 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족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ng, H., Kim, E., Kim, Y., Kim, H. & Chung, J. (2011). *The future of the family and foresight for women and family policies in Korea I* (No. 2011-1).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ang, H., Kim, E., Kim, Y., Kim, S. & Sun B. (2012). *The future of the family and foresight for women and family policies in Korea II* (No. 2012-12).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 H., Kim S., Noh Y., Sung M., Lee S., Lee H. & Chin M (2012). *A Study of family life and caregiving plan for the Centenarian Society*(No. 2012-26).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Cho. C. (2004).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are effect the elders' expectation of filial suppor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4, 71-99.
- Choi J. (1998). Filial piety and familism of the married-children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2), 47-63.
- Choi, S., Park, T. & Kang, J. (2011). A Study on the housing types selection expectation in senescence using a decision tree-focus on the baby boom generation in Pusan.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9(2), 235-251.
- Chosun Weeklybiz. (2010). The future prospects breaking the illusion. Retrieved from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6/2010030600144.html.
- Chung, K. (2012). An Outlook of baby boomers' old age lif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87, 40-49.
- Chung, K., Oh, Y., Lee, Y., Son, C., Park, B., Lee, S. Y., Lee, j. Y., Kwon, J., Kim, S. B., Lee, S. J., Lee, Y., Lee, Y. H., Choi, S. & Kim, S. Y. (2012). *The Survey on senior reality*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52000-000672-12).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Gwak, I., Kim, Y., Sung, M., Sung, Y., Lee, S. G., Lee, S. M., Cho, S. & Choi, Y. (2012).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Korean family on family's lif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o. 12-03-08(09)). Seoul: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ction of Joint Research.
- Han, G. & Lee, S. (2009).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on burden of spouse caregivers: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683-699.
- Han. G. & Yoon S. (2001).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1(2), 163-178.
- Hong, S. & Gwak, I. (2012).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class baby boomer generatio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69-92.
- Jung B. (1995). *I have complained of regression as a human*

- being. Seoul: Korea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Jung G. (2012). The Policy on population aging : achievements and the need for long-term pla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0, 127-134.
- Kang, H., Chang, H., Kim, H., Kim, Y., Choi, M., Chun, M., Chung, E., Won, Y., Lee, H, Han, J., Chang, E., Kim, M., Chang, H, Hong, M., Choi, E., Sung, E., Yu, H., Lee, S., Lim, I., Kim, S., Choi, E., Lee, D., Yoon, H., Cho, M., & Yoon, S. (2006). The Future change of the family relationship and family role in the information era.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Kim C. (2005). Changes in attitudes of Korean elderly parents toward old-age support, 1994-2004.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4), 1-11.
- Kim E. & Lee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types and intention to using long term care services. *Family and Culture*, 22(2), 1-30.
- Kim H. (2007). A Study on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frail elderly -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caregivers and non-elderly caregivers -.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7, 49-65.
- Kim M. & Seo S. (1998), Analysis on reward, filial responsibility, parental care behavior of daughters - in - law. *Journal of Family Relations*, 3(2), 81-107.
- Kim M., Moon J. & Shin E.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jugal relation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e-elder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3), 211-239.
- Kim, C. & Yoo, S. (2009). The investigation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towards life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one's personal backgrounds. *Social Sciences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25(4), 51-73.
- Kim, C. (2005). Changes in attitudes of Korean elderly parents toward old-age support, 1994-2004.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4), 1-11.
- Kim, D., Park, K. & Lee, S. (2000). Generational relationship of the middle aged to the elderly parents and their attitudes on old-age securit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3(1), 55-89.
- Kim, M., Moon, J. & Shin, E.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jugal relation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e-elder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3), 211-239.
- Lee G., Seo M., Go G. & Park J. (1994). *The Analysis of senior living reality and policy issues*.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M. (2009). Rural-urban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caregivers' burden of impaired elders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4, 71-88.
- Lee, S. H. & Sung, M. (2012). *The Human development*. Seoul, Korea: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Lee, S. Y. (2011, 12).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 Conference conducted at the Age of Centenarian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eoul, Korea.
- Lim C. (1988). Supporting-attitude type of the married eldest son and his wife living separately from his parents -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26(1), 163-177.
- Min J. & Han G. (2007). Residential move and changes in social network: focused on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4), 861-879.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The Second survey on family reality*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35-01).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Oh C. & Lee Y. (1992). Focusing on spouse's existence and health conditions-criteria for elderly's situations to identify their housing needs.
- Oh, C. & Lee, Y. (1993).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depending on four aging situatio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9(2), 35-44.
- Park K. (2002). Family caregiver's preference for social care service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241-260.
- Seok J. & Yu E. (2007). Income support and care for the elderly: the balancing of family oblig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Family Law Studies*, 21(1), 31-56.
- Seok S., Choi Ok., Song H., Lee E., Oh, J. & Shin H.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alysis report*. Seoul,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 Seok, J. (2009).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163-191.
- Song D. (2004). The Consciousness of family caregiving among women and elder car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19, 207-233.
- Sung, M. & Byun, J.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conflict for baby boom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4(1), 103-113.
- Won Y. (1995).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5(2), 97-116.
- Yoo. S. (1996). A Theoretical investigation-determinants of the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n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6(1), 51-68.
- Yoon, H. & Yoo, H. (2006). Influences of family relations on the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1), 5-31.
- Yoon, S. (2011). *Preparation for the 'generation of the 100-year-olds' and activation plans for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Conference conducted at the Age of Centenarian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eoul, Korea.
- You B. & Hong H. (2005). Analysis on the context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the U.K., U.S.A., and Japan-with perspective of Franklin's social constructionis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27-38.

- 접수 일 : 2013년 10월 21일
- 심사 일 : 2013년 12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7일